

“법궤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”

이선규 목사의 출애굽기 특강 (출37:1-9절)



성경과 우리
의 신앙의 중심
은 그리스도입니다.
그러므로 성
경에서 그리스도
를 발견하는 것
은 대단히 중요
합니다.

그런데 많은
사람들은 신약
에서 그리스도를
발견하는 것은
매우 쉽지만 구
약에서는 어렵다고
생각 합니다. 그러나
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구약에도 그
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예언이 차고도 넘
칩니다. 그 중에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신
숨겨진 비밀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대
해 살펴보려고 합니다.

법궤의 중요성은 성막에 관하여 제일
먼저 법궤로부터 시작한 것을 보아도 알
수 있습니다.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서
열상 맨 앞에 두었습니다.

그러므로 법궤 없이는 성막에서 섬기는
모든 일이 무의미 하며 또한 무가치 합니
다. 법궤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계시는
곳으로 상정되었던 것은 그의 언약의
축복이 법궤 안에 안치되었기 때문입니다.
법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상정

합니다.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
이나 또는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
법궤만은 그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으니

모든 성막기구 중에 맨 앞서 설명 되어진
것입니다.

법궤의 이름은 일곱 가지로 놀랍게도
각기 다양한 권위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
습니다.

첫째 증거 궤 (출 25:22)라고 불려 졌
는데 두 돌판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기 때
문이고

둘째는 언약궤로 (민 10:33) 하나님께
서 돌판을 통하여 언약을 분명히 하기 때
문이고 여호와의궤인데(수3:15) 이스라엘
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여리고
성을 함락 시킨 것도 법궤를 메고 갔기
때문이고 하나님의 궤 (삼상 3:3)거룩한
궤 (대하 35:3)주의 권능의 궤 (시132:8)
등으로 소개 되고 있습니다.

법궤에 그 테를 두른 것은 언약궤의 귀
중성을 보여 주신 것이고 체를 모서리에
달았으나 이편에 두 고리로 저편에 두 고
리이며 넷은 (동, 서, 남, 북) 세상의 수입
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우주 성을
의미 합니다. 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
과 피부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온
우주에 편만 하십니다.

또한 이것은 이동하기에 용이 하도록
하기 위함입니다.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
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
성전이 완성 될 때 까지는 불가피하게
언약궤를 메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또한 하나님께서 성막의 널판을 금으

로 써서 받침대 위에 세우게 하셨고 널
판을 완전히 고정시키기 위하여 긴 나무
막대기 5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. 이렇게

한 것은 성막의 모든 널판들이 다섯 개
의 긴 따로 하나로 묶여 지듯이 구원받
는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
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. 봄이 하나
요. 성령이 하나님과 이와 같이 너희가
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
느니라 (엡 4:4)

널판을 하나가 되게 묶어주는 피는 (출
36:33)그리스도 인들의 가슴과 가슴 이어
지는 성령의 상징입니다. 형제가 연합하
여 동거하고 (시133:1)협력하여 선을 이룸
을 말하는 것입니다. (롬8:28)한분 예수님
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(고후4:13)주 예수
님 안에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.

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기에 (고
후 12:13)모든 뜻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
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

1. 법궤와 삼위일체 하나님

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 두개와 만
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
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. (히9:4) 법궤
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세 가지 물품은
삼위 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
다. 십계명 돌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
성부 하나님, 만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
온 산 떡이라고 하신 (요6:51)성자 하나님
을 짜낸 지팡이는 죽은 생명을 부활시키
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
습니다.

이 세 가지 성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
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
고 내려 주시고 또 역사하신 것입니다

이 법궤는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으나
지성소는 하나님께 임해 계신 곳으로서
성막 안에 있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
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
는 “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고 (25:22)
하십니다.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한 것은
속죄소에 뿐여진 대속의 피로 말미암음입니다.
이것이 복음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
혜입니다. 이는 하나님께서 고안해낸 방법
이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.
율법아래 있게 되면 모두가 죄 아
래 있게 되고 ”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. 그
러나 은혜아래 있으면 하나님께 의롭다
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
해 진 것입니다.

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
를 모형을 통해서 보여 주시려고 성소를
짓되 내가 네게 보인 식량대로 지으라 명
령하셨던 것입니다.

2. 속죄소와 십자가

법궤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곳
은 법궤의 뒷면인 속죄소입니다. 이 속
죄소에는 정금으로 그룹 돌을 만들어
속죄소 양쪽에 두어 서로 얼굴을 대하고
날개를 펴고서 그 날개들로 속죄소를 덮
었습니다.

두 그룹의 날개가 속죄소를 덮은 것은
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
든 죄를 속량함 (덮는다) 함을 뜻합니다.
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서 대 제사장
아론을 만나 그의 속죄를 위해 피 뿐만
을 통하여 죄 사하여 주셨습니다.

이 속죄소는 율법과 은혜가 만나는 장
소입니다.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정죄된 인간이

이 속죄소에서 은혜를 입어 죄 사함을
받게 됩니다.

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
고 있습니다.

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의미
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

(히9:25-26) 법궤가 성소 안에 있는 기
구들 가운데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것은
그 성소가 법궤를 두는 집으로 지어졌기
때문입니다.

3.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주입니다.

출애굽기에는 성막의 교회는 주님의 거
하시는 집이 때문에 분명히 육과 영의
구별이 있습니다.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
가 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분리
해야 합니다. 바로 교회 안에서 누룩을
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.

본문을 보면 브사렐이 궤를 만든 장면
이 나옵니다. 그 궤는 정금으로 안팎을
씻으며 위로 돌아가면서 금으로 쌓았습
니다. 금으로 쌓았다는 것은 그의 기름
부음을 상징하고 (마 3:16)금대를 둘렀다
는 것은 예수께서 왕 중의 왕이심을
(계19:16) 보여주신 것입니다.

예수님이 쓴 신 면류관은 생의 고난과
죽기까지 낮아지는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
는 것이었습니다. 마찬 가지로 율법에 의해
먼저 정죄 당하고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
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
니다. 예수님은 구원자 이십니다.

(마1:21)그래서 세상 죄를 담당 하시고
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죄를 상
징하는 율법 돌 판을 덮는 속죄소를 만
든 것입니다. 속죄소는 법궤의 뒷면인 대
제사장 체가 정금이며 망치로 쳐서 만든 것
특징입니다.

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골고다의 고난
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말 할 것 없이
예수께서 우리대신 끌고다에서 모진 고
난의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윤
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
입니다.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
음을 입었도다. (사 53:5)

사도 바울은 빌립보 4:21절에서 그리스도
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
하라고 했습니다.

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이사
집 사람과 같은 식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.
가이사집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당시
는 네로 치하 이었습니다. 폭군이 다스
는 폭압정치의 시대에도 복음에 관심
을 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오히려 어둠
이 질을수록 빛을 찾는 무리들이 더 많
다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리스도는 알파
와 오메가 이십니다. 그의 은혜는 처음이
며 마지막 이십니다. 그 분이 시작과 끝
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가 구원자이시기
때문입니다. “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
이십니다. 그러면 그 구원자를 맞이할 자
는 누구인가?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
에게 은혜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
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도움이
시기 때문입니다. 그 뿐만 아니라 그 분이
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.”

“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
시인 한다는 놀라운 소망은 우리에게 있
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의 은혜뿐입니다.”

시작은 은혜요 끝맺음도 은혜입니다. 그
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. 성
막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더욱 발견하고
그 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
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.

“낙태죄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”

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성명서

2012년 8월에 있었던 낙태죄 위헌소송
판결에서는, “태아가 비록 그 생명유지를
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, 그 자체
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, 태아에게도
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함”을 명시하고 낙
태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
있습니다.

그런데 2017년 2월, 낙태죄와 관련된
법률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위헌
심사 요청이 한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,
다시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
습니다.

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
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있
었고, 청와대는 현법재판소에서 진행 중
인 낙태죄 위헌 소송 재판의 결과를 기
다리자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.

낙태가 여성의 권리이자 한다는 주장
은, 태아가 독립적 인간생명이라는 생물
학적, 발생학적 기본 원칙을 무시할 뿐만
아니라,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
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에도 태아에 있

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
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
있습니다. 또한 낙태 수술이 여성의 몸에
이루어지기 때문에, 낙태 하용 자체가 남
녀 양자 모두가 관련된 임신에서 더욱 여
성의 부담만을 가중하고 남성의 책임은
면제시킬 수 있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이처럼 법적, 제도적, 사회적, 문화적 차
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
침해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, 우리 국내
생명보호단체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
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
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합니다.

[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선언문]

“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
체가 시작된다.”

이것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
죽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. 임태된 순간
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, 독
립적인 한 인간입니다. 태아의 생명은 여
성의 ‘자기’ 결정권 중 ‘자기’의 범위 안에

들지 않습니다.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
정할 권리가 없습니다.

또한,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
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로 위협하고, 국
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
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에 더욱 사
회적 악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.

따라서 낙태죄 폐지 주장에 반대하며
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강력히
촉구하며,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.

1.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
합니다. 이러한 헌법은 여성의 자
기 결정권에 포함된 권리로 보는 견해에
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.

3. 낙태죄(형법 269조, 270조) 폐지는

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,

여성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
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
하게 만듭니다.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유
익이 되지 않는 낙태허용을 반대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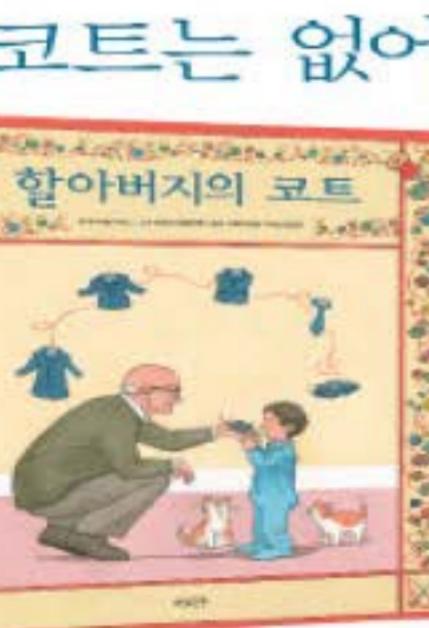
4.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
남성 모두에게 있습니다. 그러므로 아기
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명
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
을 요청합니다.

5. 임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
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입니다. 모든
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
수 있도록,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
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
행해주기를 요청합니다.

아직도, 오래되고 물품이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,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.

— 한복 디자이너·보자기 아티스트 이호재

코트는 없어졌지만,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!



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'2014 최고의 어린이책'

아국방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.
할아버지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.
남고 해져서 더 이상 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?
절대 그렇지 않아요! 금제,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,
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,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든답대요.
할아버지의 그때마다 이렇게 의쳤어요.

“아무렴, 여전히 쓸 만해.”



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. 도서 번호 02-704-7055